

광주시교육청, '제2회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 행사 개최

**'협치야, 놀자~!' 주제, 학생·학부모·시민 소통 도모
광주시교육청 주최·주관, 교육 관련 기관·단체 참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협치야, 놀자~!'를 주제로 실시한 '제2회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2회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했고, 광주교육시민참여단, 기후위기비상행동실천단, 광주마을교육공동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권역별학부모네트워크 등의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또 협치학교동아리, 학부모동아리, 학교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등 교육관련 기관도 힘을 보탰다.

'제2회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은 흥겨운 '무등산 호랑이들의 놀이 탈춤'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여는마당에서는 학부모·학생·시민들이 참여하는 주홍 치유예술가의 드로잉 퍼포먼스로 환대의 마음과 연대의 메시지를 담았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수련지도사와 함께 펼친 협치운동회도 행사를 더욱 활기 있게 만들었다.

각종 전시 및 체험부스에서는 '시민참여', '기후환경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교육복지', '학부모 참여' 등의 다양한 협치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광주시민방송에서는 청소년과 시민 DJ들의 광주FM라디오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했다. 더

불어 2022년 시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시민 제안사업을 펼친 송의과학기술고 학생들의 밴드와 댄스공연도 이어져 행사를 더욱 빛냈다. 마지막으로, 닫는 마당에서는 광주와 개초 영화동아리 어린이들이 협치 한마당의 이모저모를 촬영한 후 영상으로 편집·제작해 폐막식을 장식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이해도 단장은 "학생·시민·학부모가 함께 모여 광주교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협치 문화를 경험·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됐다"며 "교육협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안석 시민참여담당관은 "이번 '광주교육 협치 한마당'을 통해 교육 협치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소통 행사로 해 시민 협력 기반의 교육 협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완도 신지동초 '인성 결실 나눔의 날' 진행

완도 신지동초등학교는 지난 10월 31일 '인성 결실 나눔의 날'을 진행하였다. 인성 결실 나눔의 날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나, 너,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10월 한 달 동안 인성 열매를 모았다.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인성 약속을 실천하여 모은 인성 열매는 1개당 100원의 기부금으로 적립되었다.

인성 결실 나눔장터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모아서 판매하였으며 다양한 체험 코너와 먹거리 코너가 마련되어 풍성한 나눔장터로 운영되었다. 교직원들도 손수 만든 수세미, 김치 등을 기부하여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나눔 축제의 마당을 만들었다.

2022. 인성 결실 나눔의 날에 학생들이 모은 인성 열매와 나눔장터 수익금은 전액 이웃을

위한 기부에 사용할 예정이며 기부처와 기부 방식은 11월 학생 다모임 시간을 이용해 논의하게 된다.

이번 인성 결실 나눔의 날에 참여한 4학년 정윤아 학생은 "인성 결실 나눔의 날에 여러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해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나눔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박도순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모은 인성 열매를 다른 누군가와 나누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것을 남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른 인성을 길러가는 학생들이 대견하다. 이번 인성 결실 나눔의 날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 마무리까지 학생 주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졌기에 진정한 나눔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곡성교육청 '제93회 학생의 날 기념 현장체험학습' 실시



곡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에 제93회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곡성학생연합회 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독립운동 제93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에 담긴 의미를 알고 학생독

립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학생 리더로서의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국립518묘지, 전일빌딩 245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전문 해설사들의 생생한 그날의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깊이 알아가는 뜻깊은 역사여행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곡성고 김재연 학생은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에서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역사 이야기를 듣게 되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올바른 역사적 인

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김선수 교육장은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곡성의 학교 대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하고, 시련 속에서도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수많은 학생들의 숭고한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곡성학생연합회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미래사회의 참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곡성=양혜영기자

여수교육청,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 및 편성의 실제' 연수

공·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행력 강화 위해

여수교육지원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여수교육청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2.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이해 및 편성의 실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4회에 걸쳐 운영하며 공·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1부에서는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이해를 위해 해설서를 중심으로 실용연수를 실시하고, 2부에서는 유치원별 교육과정을 돌아보고 교육계획 편성·운영의 실제 워크숍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개정된 교육과정 방향에 맞게 교원들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